

작품이 말한다, 본 대로 느끼라고

현대미술가 로니 흔 작품전

세계적 현대미술가로 손꼽히는 로니 흔은 작품의 조형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가 더 강조하는 것은 관람객과 작품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다.

인물 사진으로 구성된 작품 'You are the Weather, Part 2'가 전시된 국제갤러리 전시장에 들어서면 관람객은 흥칫 당황하게 된다. 작가가 수십년째 자연의 오묘함에 이끌려 작업하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온천, 수영장에서 만난 한 여성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100장이 전시장 벽을 떠처럼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속 인물이 관람객을 보는 것인지, 관람객이 사진 속 인물을 보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작가는 "관람객은 아마도 이 작품이 촬영되고 전시되는 방식으로 인해 사진 속 여성의 시선이 자신을 응시하는 관음증적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예견한다. 관람객은 작품과 독특한 전시방식을 대면하면서 당혹감을 비롯해 복잡다단한 심경을 느끼고, 자신만의 갖가지 이야기를 구상하게 된다.

다른 전시장에는 드럼통 모양의 유리 주조 조각품이 군데군데 놓여 있다. 연두색, 파란색 등 단색의 작품들은 물을 금아놓은 듯해 대부분의 관람객은 머리



로니 흔의 유리 주조 조각품.

를 숙여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 하지만 투명한 유리만이 보일 뿐이다. 육중한 무게감과 더불어 가벼운 경쾌함이 느껴지는 작품들은 관람객마다 다양한 해석을 끌어낸다. 어떤 관람객은 단순함이 가진 조형적 아름다움을 떠올리고, 다른 관람객은 전시장 공간과 작품이 형성하는 공간환경의 독특함에 관심을 기울인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내면에 자리 한 추억 한 자락을 꺼낼 수도 있다. 22일 까지. (02)735-8449